중세까지의 서구 철학 혹은 신학은 우리가 세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Body(몸, 육체, 신체), mind(마음 혹은 정신), spirit(영혼 혹은 줄여서 영). 여기서 몸은 물리적이고 실체가 있는 것으로, 마음과 영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과 영혼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혼은 일종의 종교적, 신적 개념인 반면 마음은 신을 전제하지 않는다. 영혼은 신에게 종속되는 반면 (즉, 신 없이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은 그렇지 않다.

‘종교적’ 이라는 단어가 갖는 맥락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의 맥락에서 종교적=기독교적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고 이 경우 종교적이란 말은 몇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1.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가정하고 2. 영혼의 존재를 가정하며 3. 죽음 후 사후세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영혼의 세계이다. 즉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일생은 물리적인 실체인 몸에 영혼이 깃들었다가 육체는 바스라져 영혼이 다시 초월적인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심신)일원론과 이원론을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의 일/이원론인지 주목해야만 한다. 철학적 관점의 접근일 경우, 일반적으로 신을 전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이원론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반면 종교적 관점의 접근일 경우, 이는 당연히 신을 전제하고 이 경우 일/이원론은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마음이 영혼과 독립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마음은 모두 영혼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은 영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에 몸과 마음의 관계를 탐구할 것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마음의 개념은 인정할지언정 이는 더 근본적인 존재인 영혼으로 환원이 될 거라 생각해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우선 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인 철학적인 (혹은 비 종교적인) 관점에서 일원론과 이원론을 바라보자. 우리는 일원론을 떠올릴 때 이를 인간을 기계로 이해하는 방식이라 착각해 ‘일원론은 마음의 개념을 인정을 안한다’ 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로, (심신)일원론과 이원론은 모두 마음의 개념을 인정한다. 일원론과 이원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심신일론과 심신이론이 아니라 심신 일원론과 심신 이원론임에 주목해야한다. ‘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심신 일원론은 마음과 육체가 하나의 기원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하나로 환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심신이원론은 마음과 육체가 각각 기원을 갖고 있어 독립된 영역에 자리잡고 따라서 환원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둘째로, 일원론은 그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뉘어진다. 마음이 몸, 즉 물리적인 실체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유물론이라 하고 몸이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유심론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물론에서는 마음의 개념을 인정할지언정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고, 유심론에서는 육체의 개념을 인정할지언정 육체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살펴보기 위해 지문으로 돌아가서, 1문단을 살펴보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이 지문은 출발에서부터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임을 밝히고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개념을 육체와 대비해서 사용하며, 의사결정의 원천이 영혼이라고 한다. 이 글은 종교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일원론이 아니라 이원론을 받아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만약 종교적이지 않은 관점에서의 이원론었다면 의사결정의 원천이 마음이라고 전제했을 것이다. )

.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앞서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결정’은 영혼의 역할이라고 이해했는데, 유심론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결정, 선택, 혹은 자유의지 (여기서는 셋 다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다.) 의 기원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기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을 소개한다. 반자유의지 논증은 갈 곳 없는 자유의지의 기원을 새로 찾거나 물리적으로 귀속시키는 대신 자유의지의 개념이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 (참고: 논증은 영어 Argument의 번역으로서 주장 혹은 이론 으로 이해해도 된다.

우선 반자유의지 논증에 앞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유의지는 다양한 맥락(법적, 종교적, 과학적, 철학적 등) 에서 사용되어 그 의미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터라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는 맥락 속에서 대비대는 개념과 함께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 ‘자유의지’는 ‘결정론’과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서 인간이 ‘결정론’에 저항하게 해주는 우리 안의 무언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앞 문단까지 결정론이라는 단어는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유의지를 이해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결정론이 유물론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유물론과 결정론은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한 이론이지만 같은 이론적 배경을 공유한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뉴턴에 걸쳐 인류는 물리적 세계를 수학적으로 더욱 잘 기술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환원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유물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리적 존재들은 시간에 따른 물리적 법칙을 따르므로 미래는 과거에 의해 수학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결정론). 예를 들면 우리가 돌을 던질 때 돌에 가해지는 가속도와 바람의 세기 등을 모두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돌을 던지기 전부터 돌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양자역학 등의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 학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물론이 옳다면 결정론 역시 옳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양자역학 등이 등장하면서 유물론과 비결정론이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의: 결정론이 모든게 결정된다는 이론이라고 해서 비결정론은 모든게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정의 대상은 ‘모든게’이지 ‘결정되지’ 가 아니다. 즉 비결정론은 all random 이 아니라 not all determined 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 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 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지문에서는 결정론적인 관점(선결정 가정)과 비결정론적인 관점(무작위 가정) 모두를 받아들여, 그 어떤 경우에도 유물론을 받아들인다면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선결정 가정의 경우 고전적인 관점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취한다.

전제1: 유물론은 옳다.

전제 2-a:유물론이 옳다면 결정론도 옳다.(선결정 가정) ->3-a로 이동

2-b: 유물론이 옳으면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무작위 가정)

전제 3-a: 결정론은 자유의지와 양립불가능하다.

3-b 무작위로 일어나는 선택은 자유의지라 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유물론이 옳다면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논증을 분석한다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진다. 1. 적절한 전제를 사용하였는지, 즉 그 전제가 합당한지. 2.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적절한지. 첫 번째로 우리는 유물론 관점에서 자유의지의 존재 여부를 따지려고 하기에 전제 1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전제 2는 유물론과 결정론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유물론이 옳을 시 결정론이 옳지도 옳지 않을지도 않을 경우를 모두 포함해 적절한 전제임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제 3이다. 결정론은 정말로 자유의지와 양립불가능한가? 그리고 무작위로 일어나는 선택은 왜 자유의지라 할 수 없는가? 이 글에서는 전제 3-b를 비판함으로서 이 논증을 비판하려 한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 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 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전제 3-b ‘ 무작위로 일어나는 선택은 자유의지라 할 수 없다’ 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전제의 근거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의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 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 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이다. 둘째의 조건은 앞서 말했 듯 자유의지는 결정론과 양립불가능하기에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첫째의 조건이 몹시 애매하다. ‘주체’란 무엇인가? ‘주체’의 의미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해할 경우 이는 논점선취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함).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아직까지 자유의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일상적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와 구분하고 혼동을 피함으로서 자유의지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저자는 여기서 분명하게 자유의지란 자유로운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의지가 아니라 선결정되어있지 않고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만약 자유의지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앞선 전제3-b: 무작위로 일어나는 선택은 자유의지라 할 수 없다. 의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 무작위로 일어났을 지라도 선결정되어있지 않고 주체에 의한 선택이라면 이는 저자의 관점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영혼(비물리적 실체) 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본다.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와 비물리적 실체(영혼)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한다.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 종교적 인간관에서 인간의 선택은 비물리적 실체(영혼)에 의한다.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될 가능성과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 (무작위 가정) 을 모두 고려한다.(답)

11.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하고자 원했던 것을 자유롭게 선택

ⓑ저자가 정의하는 자유의지: 선결정되지 않고, 주체적인 선택

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원해서 한 선택은 욕구 충족적일 수 있다.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원해서 한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고, 주체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선결정되어 있다 해도 그 선택이 원했던 것을 고른 것이었을 수도 있다.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선결정되어있다면 저자가 정의하는 자유의지일 수없다. (답)

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와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 원해서 하고 선결정되어있지 않다면 ⓐ 일 수도 ⓑ 일 수도 있다.

13. 윗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A]

이 문제를 풀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가설과 실험을 이해하지 못한 체 느낌만으로 선지를 읽는 것이다. H의 실험은 가설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결국 H의 가설이 이 지문의 어떤 것에 대응되는지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피실험자가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결정(선택) 했을 때 그 이전의 뇌의 신경 사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문의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 H의 가설은 선결정 가정을 의미한다. 즉 보기에서 1,2는 선결정 과정이 증명된다면, 3,4,5 는 선결정 과정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즉 무작위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선결정 가정이 증명됐으므로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2.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선결정 가정이 참이라 해도 무작위 가정은 거짓일 수 있다.
3.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선결정 가정은 거짓일 수도 있다.
4.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선결정 가정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선결정 가정과 상관 없이 문제가 있다.(답)
5.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 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결정 가정의 입증 여부와 상관 없이 반자유 의지 논증의 결론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